



지난 20일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의 디 오리건 골프클럽에서 끝난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한 고진영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휴식기 마친 고진영 LPGA 2연승 노린다

포틀랜드 클래식서 통산 9승 위업  
올림픽 이후 한달반만에 공식대회  
24일 아칸소 챔피언십 출전

1개월 반가량의 휴식기 이후 나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6)이 기세를 몰아 2연승을 쟁조준한다.

고진영은 25일(한국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주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7월 VOA 클래식에 이어 시즌 2승이자 LPGA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한 뒤 이어지는

대회다.

고진영은 지난 20일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의 디 오리건 골프클럽(파72·6,47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친 고진영은 공동 2위인 이정은(33)과 고평 선수 오수현(호주)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1만 달러(약 2억4,000만원)다. 이 우승으로 올해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4승째를 따냈다. 고진영이 혼자 2승을 거뒀고 박인비(33)와 김효주(26)가 1승씩 기록했다.

이 대회는 원래 4라운드 72홀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폭우로 인해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3라운드 54홀로 축소됐다.

지난달 초 열린 도쿄올림픽 이후 국내에 머물며 휴식과 개인 훈련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고진영은 약 한 달 반 만에 공식 대회에 나와 곧바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뽐냈다.

예전 스윙 코치였던 이시우 코치와 함께 연습하고 퍼터를 교체하는 등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 고진영에게 더욱 의미가 큰 우승이었다.

포틀랜드 클래식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출전하지 않아 고진영은 격차를 좁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고진영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가까이 세계랭킹 1위를 달리다가 코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현재는 2위다.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으로 코다와의 랭킹 포인트 격차를 1.7점으로 줄였고,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고진영이 우승의 물꼬를 다시 트면서 예년보다 추후한 LPGA 투어 한국 선수들의 승수 쌓기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을 끈다.

2019년 15승, 지난해 7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은 올해는 4승을 거두는 데 그치고 있다.

3월 KIA 클래식의 박인비(33), 5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의 김효주(26) 이후엔 고진영의 2승뿐이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이 대회를 포함해 7개 대회가 남았다.

아칸소 챔피언십이 한국 선수들과 유독 공황이 잘 맞는 대회라는 점은 기대감을 키운다.

2008년 이선화(35)를 시작으로 2009년 신지애(33), 2013년 박인비, 2015년 최나연(34), 2017년 유소연(31), 2019년 박성현(28)이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 있다.

한국인 역대 챔피언 중엔 박성현, 유소연, 최나연이 올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김세영(28), 이정은(25), 지은희(35), 전인지(27) 등도 나선다. /연합뉴스



박효준의 희생플라이 피츠버그 파이리츠 박효준이 2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치른 미국프로야구 방문 경기 8회초 1사 1, 3루에서 희생플라이를 치고 있다. 박효준은 이날 8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6-2 승리에 힘을 보탰다. /AFP=연합뉴스

## 안산, 세계선수권 혼성전 김우진과 호흡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혼성전)에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정주시청)이 한국 대표로 나선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이틀째 리커브 여자 랭킹라운드에서 2020 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이 646점을 쏘 1위에 올랐다.

남자 랭킹라운드에서는 김우진이 677점으로 선두에 자리해 안산과 함께 혼성전에 나서게 됐다.

한국 양궁은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랭킹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남녀 선수에게 이번 세계선수권 혼성전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안산은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 '막내' 김제덕(경북일고)과 함께 혼성전 금메달을 따내 3관왕의 첫 단추를 끼운 바 있다.

남자부에서 김제덕은 6위, '말형' 오진혁



안산

김우진

(현대제철)은 7위에 올랐다.

두 선수가 똑같이 653점을 쏘 가운데, 10점을 28차례 쏜 김제덕이 23번 쏜 오진혁을 제치고 6위에 자리했다.

여자부에서는 장민희(642점·인천대)가 3위, 강채영(640점·현대모비스)이 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오창록, 추석 씨름대회 한라급 우승

〈영암군민속씨름단〉

올 시즌 3관왕 통산 9번째 장사

오창록(27·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 제약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105kg 이하) 타이틀을 차지했다.

오창록은 20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국희(중평군청)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올해 2월 설날 대회와 4월 해남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오창록은 이로써 올 시즌 3관왕을 달성하며 통산 9번째 장사 쏘기마를 탔다.

추석 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이광재(구미시청)와 박정진(광주시청)을 2-0으로 제압한 그는 준결승에서 남원택(영월군청)까지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올해 실업 무대에 데뷔한 이국희가 결승 상대로 나섰으나, 오창록의 기세가 매서웠다.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 제약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판 들배지기로 한 점을 먼저 따낸 오창록은 두 번째 판에서 상대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어진 세 번째 판에서 안다리로, 네 번째 판에서는 들배지기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 올해 전국체전 축소... 고등부 경기만 열려

내달 8~14일 경북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 개최  
장애인 체전 기간은 20~25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The 102nd National Sports Festival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고교공사' 김제덕(17·경북일고)의 '파이팅 응원'

은 들을 수 있지만,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20·광주여대)의 '하트 세리머니'는 볼 수 없다.

올해 전국체전이 고등부만 출전하는 '축소 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100년 역사의 전국체전도 그 규모가 크게 작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02회 전국체전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장애인 체전 기간은 내달 20~25일 6일간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열린다.

하지만 규모는 매우 작아진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가했는데 고등부로 제한된 올해는 2019년 대회 참가자 수의 10% 수준만 출전할 전망이다.

전국체전은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대회다.

1920년 서울 배재고보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시초로, 14회 대회까지 종목별로 대회가 진행되다가 15회체인 1934년 처음으로 종합 체육대회의 면모를 갖췄다.

일제 강점기인 19회부터 25회까지는 대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1945년 10월 서울에서 자유 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당시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는 축제로 전국체전이 열렸으나 1950년 전쟁으로 다시 중단했고, 1951년부터 100회 대회가 열린 2019년 서울 대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01회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문체부와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비롯한 5개 지자체 대표들은 지난해 전국체전 1년 순연을 결정하면서 2020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된 경

상북도에서 2021년 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체전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체육계 인사들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경계했고, 결국 대학·일반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임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전국체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전국체전의 인기가 평소보다 올라간다. 올해도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한국 스포츠 스타들이 전국체전 출전을 준비했다.

올해 8월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한 한국 양궁 대표 선수들은 이날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리는 2021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뒤 본격적인 전국체전 준비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제덕을 제외한 양궁 대표 선수들은 모두 대학·일반부 소속이어서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학·일반부 경기가 취소되면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고교스타'들이 더 조명받을 전망이다.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 및 세계 주니어신기록을 세우고 결승에서 5위를 차지한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는 자유형 50m와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한국, 카자흐스탄 꺾고 아시아 여자핸드볼 4강행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제1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조별리그를 4전 전승으로 마쳤다.

한국은 21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대회 5일째 조별리그 A조 4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0-20으로 대파했다.

4전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우리나라는 B조 2위 이란과 준결승을 치른다. 이 대회 4강 대진은 한국-이란, 일본-카자흐스탄으로 열리게 됐다.

이들 전 흥풍을 40-10으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이미 4강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아시아 선수권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상위 6개 나라에 주는 올해 12월 스페인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확보했다.

한국과 이란의 준결승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에 시작한다. 한국과 이란의 여자핸드볼 역대 전적은 4전 전승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 /연합뉴스



21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경기에서 김선화가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